참고 자료

호흡과 발성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10~11쪽
제재명	봄 오는 소리	지도서	266~267쪽

1. 바른 자세와 호흡법

바른 자세와 호흡은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자세는 호흡의 근원이고, 호흡은 발성의 근원이 된다.

(1) 바른 자세

운동에서도 자세가 중요하듯이 노래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다. 자세가 나쁘면 호흡에 변화를 일으켜 음색이나 선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몸의 힘을 뺀다. 이때 무분별하게 힘을 빼서는 안 되고 어깨가 올라가거나 턱에 힘이 들어가는 등 응어리 같은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 발바닥 전체가 안정감 있게 바닥에 닿게 하고 몸의 중심을 발가락 끝에 둔다.
- 긴장을 풀고 척추를 곧게 하여 바른 자세를 취한다.
- 시선은 자신의 눈높이보다 약간 높은 곳을 응시한다. 입의 방향도 그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때 눈만 위쪽을 향하고 얼굴은 수직보다 오히려 아래를 향하지 않게 주의한다.

(2) 바른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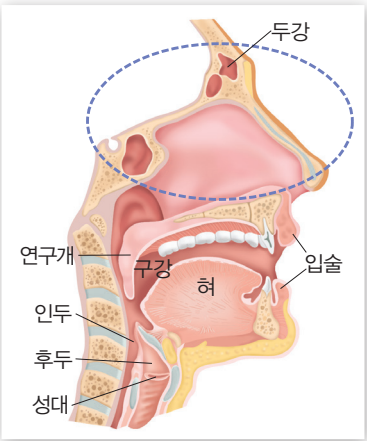
노래할 때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한다. 복식 호흡을 꾸준하게 연습하면 호흡량이 충분해져 음악적 표현이 풍부해지고, 보다 더 좋은 음성을 낼 수가 있다.

〈복식 호흡 방법〉

- 숨을 들이마실 때는 꽃향기를 맡듯이 코와 입으로 숨을 서서히 깊게 들이마시면서 아랫배를 부풀어 오르게 한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올라가서는 안 된다.
- 횡격막을 팽창시켜 폐 속에 공기가 찬 상태에서 숨을 참고 3~5초 정도 정지한다.
- 숨을 내쉴 때는 배에 있는 공기를 빼 낸다는 느낌으로 복부를 밀면서 공기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로 일정하게 조금씩 끊어서 내보낸다.

출처 문영일, "호흡과 발성", 청우, 2011, 11~54쪽.

2. 올바른 발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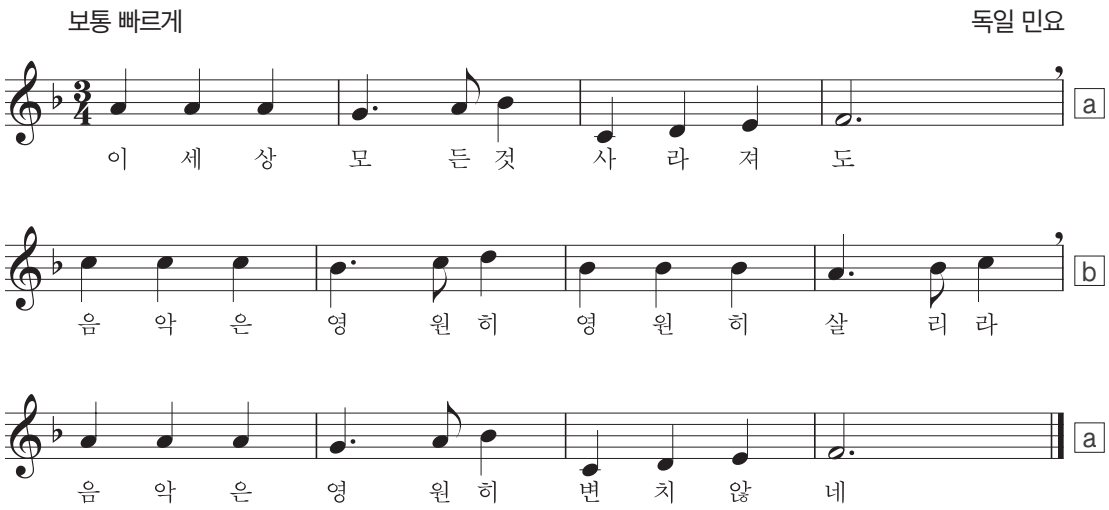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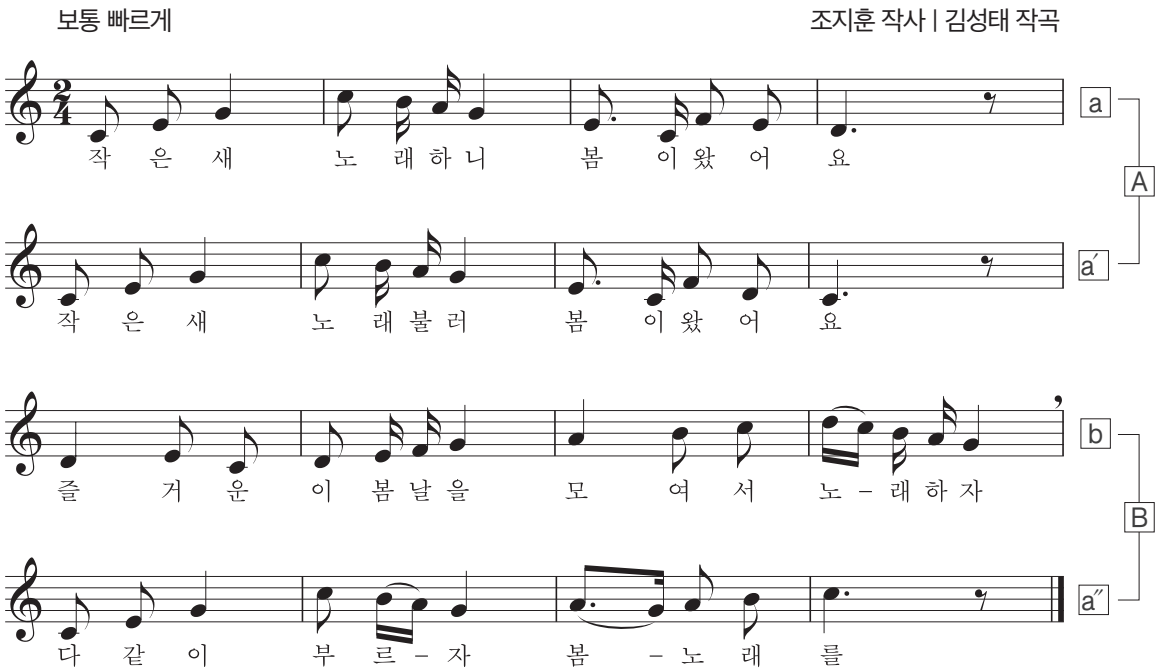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올바른 발성법을 익혀야 한다. 호흡을 이용하여 소리를 낸다면 고음이나 강한 소리를 낼 때 목에 힘을 주지 않고도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소리를 낸다.

- 소리를 내기 전에 몸의 긴장을 풀어 주고 몸을 유연하게 하기 위하여 가벼운 체조나 얼굴 근육 운동을 한다.
- 호흡은 복식 호흡을 한다.
- 노랫말에 'ㅎ' 발음을 넣어 발성한다. 실제 'ㅎ'을 넣어 발음하면 목에 힘이 덜 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를 '하'로 발음하는 것이다.
- 옆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몸에는 소리가 울릴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다. 머리에도 공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강과 비강이다. 두강과 비강을 공명하여 소리 내는 것을 바로 두성이라고 하는데, 이는 발성법의 핵심이다. 두성 발성 요령은 두 눈의 중간쯤을 공명의 초점으로 하여 코와 입의 울림을 점점 머리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 모음을 통한 두성 공명: 모음 'ㅏ, ㅖ, ㅣ, ㅗ, ㅜ' 중 두성 발성에 가장 가까운 모음이 바로 'ㅣ'이다. 'ㅣ'를 발성할 때의 느낌을 기억하며 'ㅣ → ㅖ → ㅏ → ㅗ → ㅜ'의 순서로 공명시켜 본다.

참고 자료

작은 세도막 형식, 두도막 형식 예시 악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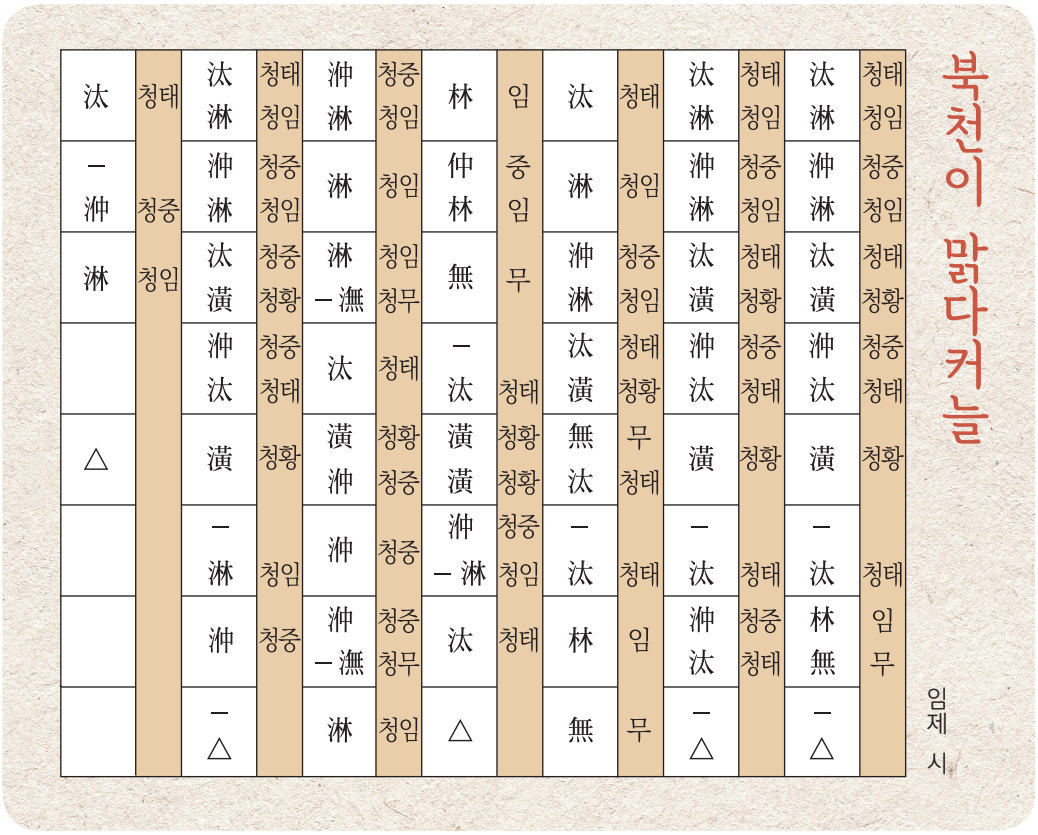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12~13쪽
제재명	음악의 형식	지도서	268~269쪽

1. 음악은 영원히(작은 세도막 형식)

2. 즐거운 봄(두도막 형식)

참고 자료

단소 오름길 ❸ 연습곡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18~19쪽
제재명	단소 오름길 ❸	지도서	274~275쪽

▶ 북천이 맑다커늘



汰	청태	汰 淋	청태 청임	沖 淋	청중 청임	林	임	汰	청태	汰 淋	청태 청임	汰 淋	청태 청임
– 沖	청중	沖 淋	청중 청임	淋	청임	仲 林	중 임	淋	청임	沖 淋	청중 청임	沖 淋	청중 청임
淋	청임	汰 潢	청중 청황	淋 – 潕	청임 청무	無	무	沖 淋	청중 청임	汰 潢	청태 청황	汰 潢	청태 청황
		沖 汰	청중 청태	汰	청태	– 汰	청태	汰 潢	청태 청황	沖 汰	청중 청태	沖 汰	청중 청태
△		潢	청황	潢 沖	청황 청중	潢 潢	청황 청황	無 汰	무 청태	潢	청황	潢	청황
		– 淋	청임	沖	청중	沖 – 淋	청중 청임	– 汰	청태	– 汰	청태	– 汰	청태
		沖	청중	沖 – 潕	청중 청무	汰	청태	林	임	沖 汰	청중 청태	林 無	임 무
		– △		淋	청임	△		無	무	– △		– △	

※ 단소 음역대에 맞게 악곡을 편곡하였습니다.

조선 시대 시인 겸 문인인 임제가 평양 기생 한우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 만든 시 '한우가'에 가락을 붙인 노래이다. '한우가'는 다음과 같다.

북천이 맑다커늘
우장 없이 길을 나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날은 찬비 맞았더니
얼어 잘까 하노라

참고 자료

감상 악곡 해설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22~23쪽
제재명	학연화대합설무	지도서	278~279쪽

1. 영산회상

궁중 또는 민간에서 연주되어 온 모음곡 형식의 기악곡으로, 처음에는 '영산회상불보살(靈山會上佛菩薩)'이라는 노랫말을 붙여 노래를 불렀으나, 후대로 오면서 노랫말은 없어지고 오늘날과 같은 기악곡으로 남게 되었다. 노래로 부르던 원래의 "영산회상"은 현재의 '상영산'에 해당한다. 이 '상영산'에서 '중영산', '세영산', '가락덜이' 등이 파생되고, '삼현도드리'와 그 변주곡인 '하현도드리'가 추가된 후 여기에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등이 추가되어 현재와 같은 아홉 곡의 모음곡이 되었다. "영산회상"에는 악기 편성이나 음악적 성격에 따라 "현악 영산회상", "관악 영산회상", "평조회상" 등 세 가지가 있다.

2. 현악 영산회상

거문고, 가야금, 해금, 세피리, 대금, 장구 등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양금, 단소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학무 반주 음악으로는 양금, 단소, 장구를 편성한다.) 특히 거문고 선율을 중심으로 연주한다고 하여 "거문고회상"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중광지곡"이라고도 하며, 현악이라는 말을 빼고 "영산회상"이라고도 한다. 거문고, 가야금 등의 현악기 소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피리는 음량이 작은 세피리를 사용하고, 대금은 저취와 평취로 연주하며, 장구도 변죽을 치는 등 전체적인 음량을 현악기에 맞추는 것이 "현악 영산회상"의 특징이다. '상영산', '중영산', '세영산', '가락덜이', '삼현도드리'("현악 영산회상"에서는 '상현도드리'라고 부른다.),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 등 아홉 곡으로 되어 있다.

3. "현악 영산회상" 중 '타령'

"현악 영산회상"의 여덟 번째 곡으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쾌한 느낌이며 타령장단으로 연주한다.

4. 관악 영산회상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영산회상으로 "삼현 영산회상" 또는 "표정만방지곡(表正萬邦之曲)"이라고도 한다. "현악 영산회상"과의 큰 차이점으로는 '하현도드리' 없이 모두 여덟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음량이 큰 관악기가 중심이 되어 편성되는 음악인 만큼 대금은 역취를 많이 쓰고, 장구의 채편은 복판을 친다는 점, "현악 영산회상"보다 소리가 크고 시원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다가 쉬고 있을 때 대금, 해금 등의 비교적 소리가 작은 악기들이 그 뒷가락을 이어서 연주하는 연음 형태를 보인다. 기본적인 악기 편성은 삼현 육각이지만 때에 따라 아쟁, 당적 등이 추가되기도 한다. "삼현 영산회상"의 악기 편성이 삼현 육각이라는 것이 말해 주듯 이 음악은 특히 무용의 반주 음악으로 많이 사용된다. "관악 영산회상"의 악곡 가운데 '삼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 '군악'을 따로 떼어 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따로 '함녕지곡'이라고 한다.

5. "관악 영산회상" 중 '타령'

"관악 영산회상"의 일곱 번째 곡으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쾌한 느낌이며 타령장단으로 연주한다.

출처 이성천·권덕원·백일형·황현정, "알기 쉬운 국악개론", 도서출판 풍남, 2008, 276~288쪽.

참고 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24~25쪽
제재명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	지도서	280~281쪽

1. 세계 유산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자연 유산과 문화유산 모두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과 영감의 원천이다.

유산의 형태는 독특하면서도 다양하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세렝게티 평원에서부터 이집트의 피라미드, 호주의 산호초와 남미 대륙의 바로크 성당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류의 유산이다. '세계 유산'이라는 특별한 개념이 나타난 것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 유산 및 문화유산들을 발굴 및 보호·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 유산 협약')을 채택하였다.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석굴암과 불국사(1995), 창덕궁(1997), 화성(1997), 경주 역사 유적 지구(2000), 고창·화순·강화의 고인돌 유적(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2007), 조선 왕릉(2009), 한국의 역사 마을: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백제 역사 유적 지구(2015).

▲ 종묘

▲ 창덕궁

▲ 남한산성

2. 인류 무형 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인 동시에 살아 있는 문화이다. 무형 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 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해 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 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른다.

유네스코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무형 문화유산 보호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무형 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하였다. 이후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70개국에서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 문화유산 걸작으로 지정되었다. 무형 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인식이 커지면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국제 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였음을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무형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세계화와 급속한 도시화, 문화 통합 정책과 더불어 젊은 세대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형 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종묘 제례 및 종묘 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 단오제(2005), 처용무(2009), 강강술래(2009),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대목장, 한국의 전통 목조 건축(2010), 매사냥, 살아 있는 인류 유산(2010), 가곡, 관현악 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2010), 줄타기(2011), 택견, 한국의 전통 무술(2011), 한산 모시 짜기(2011), 아리랑, 한국의 서정 민요(2012),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 해녀 문화(2016).

▲ 대목장

▲ 택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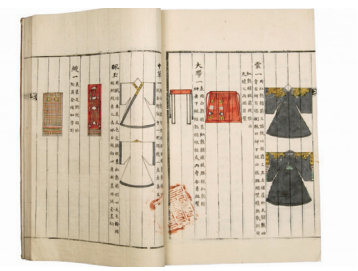
▲ 한산 모시 짜기

3. 세계 기록 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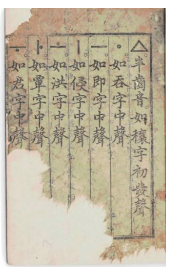
세계 기록 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이다. 단독 기록일 수 있으며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일 수도 있다. 유네스코는 1995년에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 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 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세계 기록 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하였다.

- 필사본, 도서, 신문, 포스터 등 기록이 담긴 자료와 플라스틱, 파피루스, 양피지, 야자 잎, 나무껍질, 섬유, 돌 또는 기타 자료로 기록이 남아 있는 자료
- 그림, 프린트, 지도, 음악 등 비문자 자료(non-textual materials)
-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 오디오, 비디오, 원문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형태의 정지된 이미지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 데이터

조선왕조실록(1997), 훈민정음(해례본)(1997), 승정원일기(2001),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2001), 조선왕조 의궤(2007),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1980년 인권 기록 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의 진중일기(2013), 한국의 유교 책판(2015),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2015), 국채 보상 운동 기록물(2017), 조선 통신사에 관한 기록_17~19세기 한·일 간 평화 구축과 문화 교류의 역사(2017), 조선 왕실 어보와 어책(2017).



▲ 조선왕조 의궤(화성능행도)



▲ 훈민정음

▲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출처 유네스코와 유산

참고 자료

우리나라 문화재의 종류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24~25쪽
제재명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	지도서	280~281쪽

1. 국가 지정 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 문화재로서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보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 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 ▷ 서울 숭례문, 훈민정음 등
보물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 자료·무구 등의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 ▷ 서울 흥인지문, 대동여지도 등
사적	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 ▷ 수원 화성, 경주 포석정지 등
명승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 ▷ 명주 청학동 소금강, 여수 상백도·하백도 일원 등
천연기념물	기념물 중 동물(서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지 포함), 지질·광물로서 중요한 것 ▷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노랑부리백로 등
국가 무형 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 종묘 제례악, 양주 별산대놀이 등
국가 민속 문화재	의식주·생산·생업·교통·운수·통신·교역·사회생활·민속 신앙·예능·오락·유희 등으로서 중요한 것 ▷ 덕온 공주당의, 안동 하회마을 등

2. 시도 지정 문화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 자치 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 문화재 · 무형 문화재 · 기념물 및 민속 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 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
무형 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닌 것, 사회 문화적 환경에 대응하여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동물(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포함)·식물(자생지 포함)·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민속 문화재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 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

그 밖에 시도 지정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 자료',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 · 제작 · 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한 '등록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 '미지정 문화재'가 있다.

출처 문화재청

참고 자료

음악과 관련된 국가 무형 문화재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24~25쪽
제재명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	지도서	280~281쪽

음악 관련 국가 무형 문화재

음악과 같이 형태가 없는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가 무형 문화재로 분류된다.

번호	명칭	내용
1	종묘 제례악	조선 시대 역대 군왕의 신위를 모시는 종묘와 영녕전의 제향에 쓰이는 음악
2	양주 별산대놀이	서울과 중부 지방에 전승되어 오는 산대놀이의 한 분파
3	남사당놀이	조선 시대 유랑 연예인 집단인 남사당의 연희 내용
5	판소리	한국의 전국 일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농민 음악
6	통영 오광대	경상남도 통영시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 가면극
7	고성 오광대	경상남도 고성 지방에 전승되는 탈놀이
8	강강술래	전라도 지방의 민속놀이
11	농악	한국의 전국 일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농민 음악
13	강릉 단오제	강원도 강릉에서 단옷날을 전후하여 서낭신에 지내는 마을 공동 축제
15	북청 사자놀음	함경남도 북청군 일대에서 해마다 음력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며칠 동안 연희된 사자놀이
16	거문고 산조	거문고를 위한 독주곡
17	봉산 탈춤	황해도 봉산 지방에 전승되어 오는 가면극
18	동래야류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에 전승되어 오는 탈춤
19	선소리산타령	경기도를 비롯하여 서도·남도 지방의 잡가 중 서서 부르는 선소리의 대표적 곡목
20	대금 정악	정악으로 연주하는 대금곡의 총칭
21	승전무	경상남도 통영시에 전승되는 민속 무용
23	가야금 산조 및 병창	가야금을 위한 독주곡 및 가야금으로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음악
27	승무	한국의 민속 무용
29	서도 소리	평안도·황해도 등 관서 지방의 향토 가요
30	가곡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시조를 노래 부르는 한국의 전통 성악곡
34	강령탈춤	황해도 강령 지방에 전승되어 오던 해서 탈춤의 하나로 일종의 가면극
39	처용무	궁중 '나례(儺禮)'나 중요 연례(宴禮)에 처용의 가면을 쓰고 추던 탈춤
40	학연화대합설무	고려 시대부터 전해 오는 향악 정재
41	가사	한국의 전통 성악곡
45	대금 산조	대금을 위한 산조 독주곡
46	피리 정악 및 대취타	왕이나 귀인의 행차, 군대의 행진에서 취고수들이 연주하는 행진 음악
49	송파산대놀이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전승되어 오는 산대놀이
50	영산재	불교 의식의 하나
51	남도 들노래	전라남도 진도·나주 지방에서 논일이나 밭일을 할 때 부르는 노동요의 총칭

번호	명칭	설명
57	경기 민요	서울·경기 지방에 전승되어 오는 민요
61	은율탈춤	황해도 은율 지방에 전승되어 오는 가면 무용극
69	하회 별신굿 탈놀이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전승되어 오는 민속 가면극
70	양주 소놀이굿	경기도 양주 지방에서 전수되어 온 굿 형식의 연희적 성격을 갖춘 놀이
71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해마다 음력 2월 1~14일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인 칠머리당에서 하는 굿
72	진도 씻김굿	전라남도 진도에 전승되는 무속 사자(死者) 의례
73	가산 오광대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에 전승되어 오는 가면극
82	풍어제	어민들이 풍어와 안전을 비는 마을굿
83	향제 줄풍류	지방에 전승되는 현악 영산회상
84	농요	논이나 밭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90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황해도 평산 지방 경사굿의 제석굿에서 무당이 소 모양으로 꾸미고 노는 굿 놀음
92	태평무	왕과 왕비 그리고 태평성대를 축원하기 위하여 추는 춤
95	제주 민요	제주 지방에서 불리는 향토·통속 민요
97	살풀이춤	남도 무무 계통의 춤으로 살, 즉 액(厄)을 푼다(제거한다)는 뜻을 지닌 민속 무용
98	경기도 도당굿	경기도 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는 마을굿
104	서울 새남굿	서울 지역의 전통적인 망자 천도굿
122	연등회	신라에서 시작되어 고려 시대에 국가적 행사로 자리 잡은 불교 행사
123	법성포 단오제	전라남도 영광군 법성포에서 벌이는 서해안 최대 규모의 단오절 행사
125	삼화사 수륙재	강원도 두타산 삼화사에서 행해지던 조선 시대 왕실 주도의 대규모 불교 의식
126	진관사 수륙재	서울 진관사에서 행해지던 조선 시대 왕실 주도의 대규모 불교 의식
127	아랫녘 수륙재	조선 시대 초기 이후 모든 수륙의 고혼 천도를 위하여 행해졌던 불교 의례
129	아리랑	한국의 구전 민요

출처 두산백과

참고 자료

버나 만드는 방법

단원명	1. 마음을 열며	교과서	24~25쪽
제재명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	지도서	280~281쪽

1. 버나

버나는 연희자가 어릿광대를 대동하고 음악 반주에 맞추어 대접, 접시, 쳇바퀴 등 각종 물체를 쳐올려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전통 연희이다. 버나는 돌리는 대상에 따라 대접돌리기, 쳇바퀴 돌리기, 놋대야 돌리기, 접시돌리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버나는 물체에 대한 숙련된 손 기술과 회전 운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공연 종목으로, 사용하는 도구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접, 쟁반, 접시 등이다. 버나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를 다루는 노련함을 바탕으로 유희화하면서 전문 공연 예술로 발전시켰으며 유술, 줄타기, 나무다리 걷기, 역기 거중, 솟대타기 등 다양한 전통 연희 종목과 결합하여 연행했다. 버나가 실제 연행된 시기는 선조 13년(1580)보다 훨씬 앞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사당패의 버나는 현재 국가 무형 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남사당 연희의 한 종목이다. 35~40㎝ 가량의 앵두나무 막대기, 담뱃대, 칼, 자새(연을 띄울 때 쓰는 얼레) 등을 가지고 쳇바퀴(버나), 대접, 대야, 메꾸리(바구니의 일종) 등을 돌리며,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으면서 놀리는 연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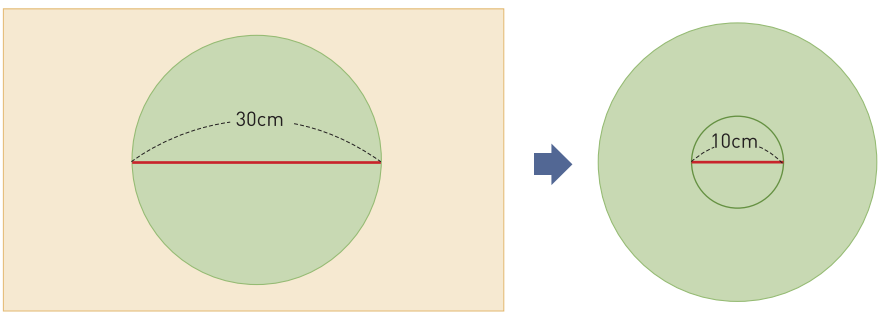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전경욱 외, "한국 전통 연희 사전", 민속원, 2014.)

2. 두꺼운 종이로 버나 만드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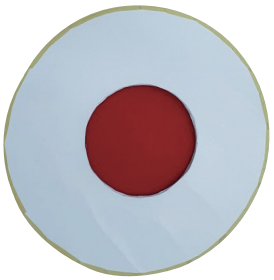
준비물: 두꺼운 종이(마분지 또는 하드보드지) 2~3장, 끝이 뾰족한 긴 막대(튀김용 젓가락 등) 1개, 펠트지(또는 부직포), 종이테이프, 접착제, 칼, 가위, 꾸밀 재료(스티커, 색지) 등

① 펠트지에 지름 12㎝ 원을 그려서 가위로 오린 후 여러 장 만들어 붙인다.

② 두꺼운 종이에 30㎝ 지름의 원을 그려 가위로 자른다. 자른 30㎝ 지름의 원 중심에 다시 지름 10㎝의 원을 그려 잘라 낸다.



③ 두꺼운 종이의 뚫어진 가운데 원에 펠트지를 댄다.



④ 펠트지를 붙일 때는 지나치게 팽팽하게 붙이지 않고 펠트지에 약간 신축성이 있도록 하여 가장자리만 붙인다. 펠트지가 너무 얇으면 뚫어질 수 있으므로 펠트지를 여러 장 겹쳐서 댄다.

- 완성된 버나에 스티커나 색지를 사용하여 꾸며서 개성 있는 버나를 만든다.
- 펠트지를 대지 않은 쪽을 아래로 하여 긴 막대(튀김용 젓가락 등)를 대고 중심을 잡는다. 젓가락의 뾰족한 부분으로 돌리면 쉽다.

▲ 버나 아래 모습

▲ 버나 위 모습

▲ 긴 막대

⑤ 왼손으로 버나의 끝을 잡고 천천히 중심을 잡으며 돌린다.

⑥ 모둠별로 연습 후 익숙해지면 수직으로 높게 던져 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악에 맞추어 놀이한다.